



영인산성

아산시는 지리적으로 안성천과 삽교천을 좌우로 하여 북쪽으로는 아산만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예로부터 서해를 거쳐 외적의 침입이 빈번하였고, 백제이후 조선시대까지 외적방위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토성, 석성 축조가 곳곳에서 이루어져 아산시 관내에 20여개소의 성지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중의 하나가 영인산성이다.

영인산성은 해발 364m의 영인산 정상부에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하였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퇴락이 심하여 성의 구조를 살피기는 어렵지만 납작한 돌로 외면을 맞추어 거의 수직에 가깝도록 쌓았으며, 그 둘레가 1,000m에 이르는 백제시대 석축산성으로 현재 높이 3m, 길이 300-400m의 동벽 부분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아산군지 하권 제3장 제2절 참고)

〈제공 : 아산시청〉